

이명희 대표이사

2020년 취임인사 및 2021년 계획



안녕하세요. 지난 10월부터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된 이명희입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들 드리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서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새날복지회 회원, 자원봉사자, 산하기관 직원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2020년은 코로나 19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전 국민이 당황하였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간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새날복지회의 모든 직원과 회원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힘내어 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새날복지회는 펜데믹시대를 통과하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1년은 회원중심의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새날복지회의 기본 축은 사단법인으로써, 새날회원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회원중심의 운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회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둘째, 새날복지회는 즐거운학교로 대표되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보호가 특화된 법인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정책인 온마을 아동돌봄 정책에 발맞추어 함께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새날복지회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이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선 만들어가는 새날복지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을 만들기는 이제 국가 아젠다에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마을만들기, 공유부엌, 시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재정비 및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직원, 후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1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말, 이명희 올림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제13회 청소년만화그리기 공모전



고등부 이현송



중등부 손예린



초등부 조수아

코로나19로 인하여 13년 만에 만화그리기대회가 공모전으로 전환되어 진행되었습니다. 110명의 청소년의 신청으로 작품접수를 온라인과 방문으로 접수하였으며 주제는 「모두의 위로」였습니다. 이번 작품은 공모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청소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 예전보다 심사하기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두 심사위원의 심사평입니다.

황중선 심사위원

코로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주제는 <모두의 위로>입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나는 나를 위로합니다. 만화를 보면서 우리는 위로 받습니다. 많은 청소년 친구들의 응모 작품을 봤습니다. 밝은 그림, 의미 있는 내용의 만화들, 순수하고 깨끗한 느낌의 만화들을 봤습니다.

두 심사위원은 참가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창작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예년에 비해 한층 높아진 실력을 칭찬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에도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제13회 청소년만화그리기 공모전에서 대상(성남시장상)은 초등부는 조수아, 중등부는 손예린, 고등부는 이현송 학생이며 최우수상(성남교육장상)은 초등부는 김건우, 중등부는 전효린, 고등부는 김나연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수상소식은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용연 심사위원

사실 오늘 가성세대인 나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 나이 때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림 솜씨에 놀라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깊은 것에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요. 수상한 이에겐 축하의 박수를 또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할지도 모를 이에겐 어깨를 토닥여봅니다.

법인 사무국

수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와 함께 하는 논밭이야기

새날복지회는 해마다 열었던 뷰티풀라이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전처럼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얼 전해야 할까? 어려운 때 일수록 더 낮게, 더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날의 정신을 살려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가와 손을 잡고 함께의 가치가 깊은 농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연락하며 발굴한 총7개의 농가(성산농원 호박고구마, 김효진의 섬진강편지쌀 햅쌀, 청암농원 사과즙, 오디YOU농장 오디잼, 보람농원 대봉,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연합사업팀 굴, 대림배농원 배즙)와 마켓 새날을 열었습니다.

[김효진의 섬진강편지쌀 판매자의 한마디]

이번 여름 태풍으로 수확량이 많이 줄어 걱정이 많았는데 새날복지회에서 많은 양을 주문해주셔서 덕분에 한숨 덜었습니다!

- 총 수익금 : 26,640,000원
- 사업수행비(농가 정산금, 홍보제작비 등) : 18,586,400원
- 순수 후원금 : 8,053,600원

후원금은 2021년 성남시 아동청소년의 심리치료장학금과 지역주민의 주권적 삶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언택트 시대,
새날복지회는 서로를 연결하는 온(溫)택트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즐거운학교지역아동센터

코로나와 동행하는 즐거운학교의 변화된 일상! 그 다음을 위한 준비!



달그락~달그락~ 센터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전날 뒤근 전 방역을 하였으나 혹시 몰라 아이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다시 한다. 곧바로 온라인 학습을 위해 센터에 있는 모든 pc를 준비한다. 하지만 아이들 수에 비해 pc가 부족해 핸드폰까지 사용한다. 10여명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는 센터는 오전에 pc방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한다. 선생님들은 저학년 아이들의 질문과 준비물 요청에 오전부터 바쁘다. 그 외에 마스크 쓰라는 반복적인 말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아이들과의 실상이 계속된다. 점심식사를 마치면 학교에 등교했던 아이들이 센터로 오게 되면서 더욱 바빠진다. 열체크,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는 10개월이 되어도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기본 학습지도를 마치고 방역을 위한 청소를 다시 시작한다. 어느 새 저녁식사 시간이다. 이때는 정말 신경이 많이 곤두선다. 20여명 아이들이 마스크를 모두 벗고도 안전하게 식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은 말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높아진다. “식사 중 얘기하지 않기! 돌아다니지 않기!” 식사 후 아동들이 가고 나면 센터 전체를 소독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 한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초등학교 휴교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혁신적인 노력은 여러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과 온라인 안전 확인, 소그룹 프로그램 진행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며 긴급 돌봄을 넘어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며 앞으로의 더 큰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본 2020년이었다.

태평4동어린이집



태평4동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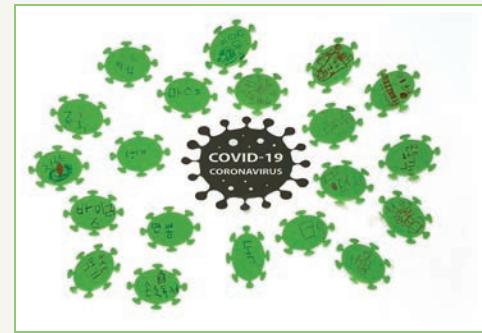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

“선생님! 엄마가 마스크 벗으면 안된대요!” 유아들도 어린이집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일상에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코로나19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하면 떠오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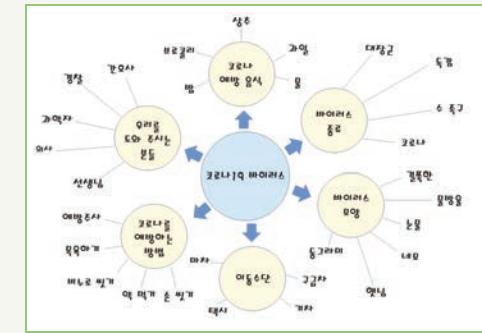
브레인스토밍



유목화



아이들과 함께 만든 주제망



두 번째

반별 활동

5세 ① 덕분에 챌린지 감사편지 전달하기

감사편지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책자에 기고해 주신 대구 의료진께 우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5세 ② 음압 병실 놀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음압병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음압 병실의 특징을 살펴보며 아이들은 벽돌블록, 천, 의자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병실을 꾸몄습니다.

5세 ③ 마스크 꾸미기

유아들이 마스크를 착용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종종 마스크를 벗어 놓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 얼굴에 씌워 줄 나만의 예쁜마스크 꾸미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6세 ① 선별 진료소 병원 놀이



아이들은 각자 의사, 환자, 간호사가 되어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서류와 도구들을 함께 알아보고 코로나 증상 문진표, 체온 측정표 등의 서류와 도구들을 만들어 놀이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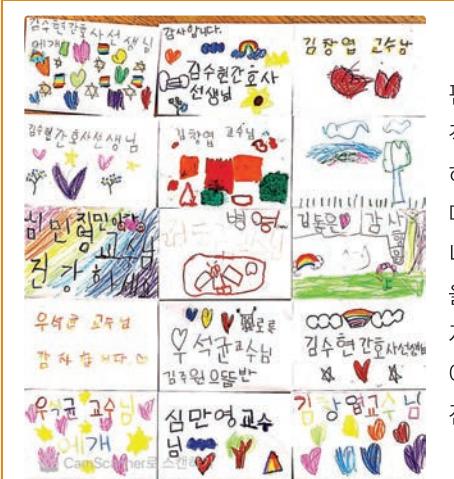
6세 ② 바이러스를 물리쳐요



아이들은 미술영역에 있는 재료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 장풍을 날려 바이러스를 물리쳤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물려가랏!!”

두 번째

7세 ① 의료진들께 보내는 응원의 편지



편지를 받은 의료진들께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여 응원메세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쁜 생각을 했느냐며 아이들이 쓴 편지에 가슴이 뭉클했느라고,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7세 ② 음압병실을 꾸며요



“화진자들이 누워있는 음압병실은 얼마나 답답할까?” 매일을 그곳에서 생활하는 의료진분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길 기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프로젝트 전시회(2020년 11월 13일)

1. 전시회 입장



2. 손소독 및 발열체크



3. 전시회 관람



코로나 종식 소원탑

전시회 전경

바이러스 관찰



4. 안내요원이 된 언니 오빠들



휴원이 반복되며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코로나19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다시금 일상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 소원탑에 적힌 아이들의 염원대로 우리는 모두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새날복지회 가족모두가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태평4동어린이집

새날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태평4동어린이집 희망-ON 메시지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바이러스**상대원1동복지회관****“코로나가 남긴 그리움”**

2018년 새날초등학교 가을체험활동에서 짹꿍과 함께

‘지금까지 이런 전염병은 없었다.’ 오늘까지 수많은 질병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토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대원1동복지회관의 모습과 생활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2월부터 무기한 운영중단으로 어르신들의 집이자 놀이터였던 공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주 1회 대체 식품을 나누어드리는 짧은 만남만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었을 당시 조심스럽지만 프로그램의 일부가 한시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다시 살아났고, 새날초등학교는 비대면 수업에서 10인 이하의 대면 수업으로, 아름드리 노인대학에선 일부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새날초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김명순, 김연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상대원1동에 터를 잡고 지내시다 상대원1동복지회관 프로그램인 새날초등학교에서 인연이 되신 두 분은 항상 같은 반, 옆자리에서 공부하는 절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건강이 좋지 않으신 김연경 어르신께선 강원도에 계신 자녀분이 모시기로 하였는데요. 거주지를 옮겨 다시 볼 수 없는 두 분의 안타까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이 돋드리고자 연락을 드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여쭈었습니다.

김연경어르신 : ‘말도 못하게 정이 들었던 곳이고 내 고향 같은 곳인데 가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보고싶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복지사님, 관광님도 너무 보고싶어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들 혼자 보면서 웃고 지내. 거기서 같이 점심 먹을 때 더 맛있고 좋았어. 선생님들도 다정하게 잘해주고... 이제 계속 이 곳에서 지낼 거 같은데 미련이 남아 마음이 아프네. 건강하게 잘 지내요. 꼭! 건강하게!

김명순어르신 :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여,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 빈자리가 크네. 어서 코로나가 끝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어르신들의 간절한 마음이 달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 모여 환한 웃음을 나누었던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산성종합사회복지관

DB손해보험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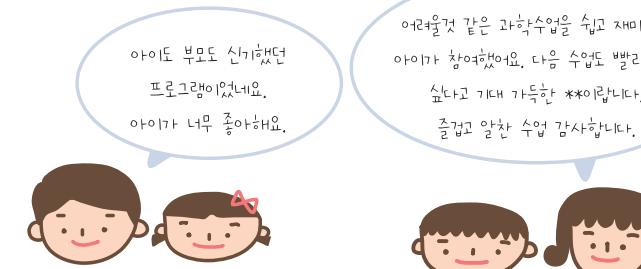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집단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온택트 프로그램 형식으로 전환하여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온택트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는지 함께 구경하려 가보실까요?

활동 키트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은 온라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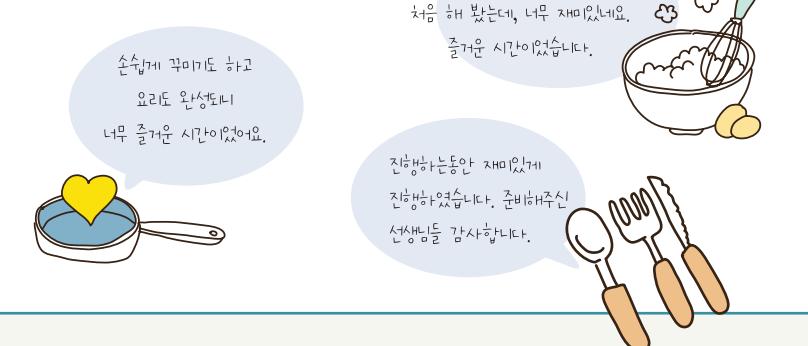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과학/요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키트를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하기 싫은 과학? No~ 하고 싶은 과학!

비트바이트 피자 만들기를 통해 컴퓨터가 알파벳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시크릿 코드 금고를 만들며 암호화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학 수업 참여자 Talk Talk!**오늘은 우리 가족이 1등 요리사!**

요리활동으로는 짭곡밥 브리또 만들기, 미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며 우리 가족이 일일 요리사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리 수업 참여자 Talk Talk!

2021년에도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온택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산성제2어린이집**QR코드를 찍으면 산성제2어린이집의 신나는 온택트 아침체조를 볼 수 있어요!**

산성제2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이 많이 줄어든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매일 아침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 함께 보아요!

